



권동현

비주얼라이터

- 비주얼스토리텔러
- 작가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경영 석사

해가 지면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리는 산업단지의 어두운 밤거리는 그곳을 매일 오가는 근로자들에게 짙은 불안과 단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근로자와 정책 담당자, 비주얼라이터 권동현 작가가 한 팀으로 뭉친 이번 해커톤에서 '왕산단' 팀은 방치된 유허 건물을 야간 근로자의 안전한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산단지기'를 제안했습니다. 삭막한 어둠을 밝히는 등대이자 지식 공유와 안심 휴식이 결합된 이 따뜻한 혁신의 공간은, 산단의 밤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다 함께 연대하는 밝은 내일이 될 수 있음을 멋지게 증명해 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러 갔다가, 길을 그리게 됐습니다

산업단지 정책 해커톤, 비주얼라이터 권동현 인터뷰

“이제, 그림만 멋지게 그리면 되겠구나”

Q. 처음 이 해커톤에 참여한다고 들으셨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A. 해커톤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이디어 그림만 멋지게 그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협업 한다는 점에 기대도 컸습니다.

Q. 행사 전에는 산업단지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A. 국가 산업지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Q. ‘이건 진짜 산업단지 현장의 문제다’라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A. 산업단지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답을 정하지 않았기에, 답이 나왔다”

Q. 서비스디자인 방식이 일반 회의나 일반적인 워크숍과 다르게 느껴진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A. 답을 정해놓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처음 만난 팀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목표를 갖고 함께 풀어나가는 일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의 결과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팀의 색깔이 그림 위에 나타나던 순간”

Q. 처음 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가장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A. 팀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느껴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수용하고 그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Q. 말로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가 그림으로 정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A.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더해지면서, 흐릿했던 아이디어들이 그림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같은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팀의 색깔과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AI보다 소중했던 것”

Q. 비주얼라이팅이 팀원들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물론 요즘은 AI를 통해 누구나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팀원들과 소통하며 직접 구체화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해 서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과정은 길었지만 결국 더 빠르게 최종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Q. 정책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사업 아이템이 아닌 정책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특정 대상에게 단순히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Q. 이 해커톤 이후 산업단지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산업단지는 국가의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산업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단지를 존중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이번 해커톤을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A. 많은 사람들이 모여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돌을 하나씩 쌓을 때는 그냥 바위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완성한 후에는 역사에 남을 랜드마크가 됩니다.

마치며 — 바위가 랜드마크가 되는 순간

그는 이번 해커톤을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피라미드를 그리겠다고 했다. 처음 돌을 하나씩 쌓을 때는 그냥 바위 덩어리다. 그런데 모두가 힘을 합쳐 완성한 후에는 역사에 남을 랜드마크가 된다. 그는 1박 2일 동안 그 피라미드를 그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리는 동안 뭔가를 깨달았다. 바위 하나하나를 잇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일이었다는 것을. 멋진 그림이 아니라, 함께 쌓아가는 과정이. “그림만 멋지게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제 스스로 앞으로 그려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산단지기는 어둠 속에 등대를 세우려 했다. 등대는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해커톤 1박 2일이, 그에게도 하나의 방향을 가리켜주었는지 모르겠다.



인터뷰
풀버전 보러가기

